

사찰불교대학, '부동품계 양성' 요람 맞나

조계종 신도 정책을 점검하다

- ① 시행 5년 신도품계와 조직화
- ② 신도재교육 '불교대학'의 명암
- ③ 신도정책 변화 성공하려면

조계종 포교원에서 2009년부터 추진한 신도품계제도의 핵심은 교육화·전문화된 신도를 양성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데 있다.

입교와 기본 요계를 수지하면 받을 수 있는 발심과 사찰에서의 기본교육 12시간을 이수하면 승급되는 행도는 정확하게는 조계종 신도로서 기본 소양을 닦는 과정이다. 신도 재교육을 통한 교육화된 '진성 신도' 양성은 부동품계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품계의 활성화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사찰불교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도들이 부동 품계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에서 1년에 96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불교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입학생과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졸업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불교대학을 졸업해 부동품계를 받는 신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포교원이 지난 6월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18개의 불교대학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1~2013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7300명에서 8127명으로 증가했으

2011~13학년도 불교대학 통계 현황

구분	입학생	졸업 및 수료자	부동품계 품서자	인가 대학수	졸업보고 제출대학	졸업보고 미제출대학	기타 (휴교·해외)
2011학년도	7,300명 (100%)	5,600명 (77%)	4,900명 (67%)	112곳	96곳 (86%)	8곳 (7%)	8곳 (7%)
2012학년도	8,200명 (100%)	5,700명 (70%)	4,700명 (57%)	115곳	96곳 (83%)	9곳 (8%)	10곳 (9%)
2013학년도	8,127명 (100%)	5,435명 (67%)	4,582명 (56%)	121곳	90곳 (83%)	18곳 (16%)	13곳 (11%)

불교대학·입학생 수는 늘는데 졸업생 숫자는 날이 갈수록 감소 중 성별·연령·지역별 편중도 심각

지방일수록 강사 수급에 난항 교육 커리큘럼 소화도 힘들어

며, 인가대학수도 112곳에서 121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졸업 및 수료자는 5600명에서 5435명, 부동품계 품서자는 4900명에서 4582명으로 줄었다. 불교대학·입학생 수와 졸업생 수가 반비례 하는 소위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졸업생 구성현황도 연령·성별·지역별 편중이 심해 계층별로 다양한 불자를 양성해 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 된다.

2013년 지역별 졸업생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졸업생 4582명 가운데 서울 870명(18.9%), 경남 606명(13.2%), 부산 477명(10.4%)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인천 86명(1.8%), 대전 84명(1.8%), 전남 95

명(2.0%), 광주 125명(2.7%), 전북 88명(1.9%)으로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졸업자 현황 비율은 1:3으로 여성 불자 수가 3배 많았다. 또한 연령대로는 50대가 2336명으로 절반(50.9%)을 차지했으며 40대 1300명(28.3%), 60대 682명(14.8%) 순으로 졸업생이 배출됐다. 하지만 젊은 불자는 10대 1명(0.02%), 20대는 15명(0.3%)만이 불교대를 졸업해 연령대 불균형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입학 후 중도에 수업을 듣지 못한 신도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불교대학의 20~25%가 인원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며 "또한 매년 10개의 사찰에서 불교대학이 신규 인가돼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으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휴교 및 폐교 신청을 하는 사찰도 있어 불교대학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졸업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은 2011년 8곳에서 2013년 18곳으로 늘어났으며, 휴교 및 폐교를 한 사찰은 8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졸업보고를 하는 불교대학이 줄었다는 것은 신도품계제도가 시행 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일선 사찰에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으로 갈수록 커리큘럼 구성과 강사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종단 포교원에서 강사 인력 풀과 커리큘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개별 사찰에서 불교대학을 개설하기보다는 지역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일원화 된 신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제 12교구본사 해인사의 경우 일부 소속 말사에서 '해인사 불교문화대학'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교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강사 수급도 해인사 강원의 스님들이 나서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불교대학과 지방의 소규모 불교대학으로 출강하는 한 강사는 "요즘 수강생들은 불교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접근해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유명강사를 주지 스님이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지만, 시간·물리적 한계로 지방의 불교대학과 커리큘럼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불교대학 강사는 "대부분의 불교대학은 강사들을 발굴하기 보다는 단순한 인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포교원은 일선 불교 대학에서 강사 수급을 요청할 경우 적재적소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이은은 기자

제26회 조계종 포교대상 지홍 스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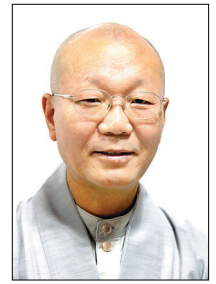
지역·문서 포교에 기여... 무구 스님 등 원력상 수상

조계종 제26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은)은 11월 6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6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포교원은 대상(종정상) 수상자인 지홍 스님을 비롯해, 공로상(총무원장상)에 대원 스님(각원사 주지),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최정수(봉은사 신도회장), 류재환(전국병원불자회 고문단장) 4명을 선정했으며,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 무구 스님(백전사 주지·수효사 효림원 대표이사), 일운 스님(불명사 주지), 신희승(인천파라미타협회 사무처장), 배광식(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진정순(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부연맹장),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교직원불자회 '연우회' 등 6명, 단체 1곳을 선정했다.

포교원은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



해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종정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홍 스님은 90년 광명예금강정사를 설립해 지역의 중심 사찰로 성장시켰으며, 98년 조계사 주지 부임 이후 시민들에게 열린 사찰로 운영해 신망을 얻었다.

또한 2004년 불광사 회주로 부임해 송파노인요양센터, 불광유치원, 불광출판사의 발전을 이끌어 지역사회의 포교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포교와 계층포교를 아우르는 원력을 펼쳐왔다. 특히, 불광출판사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성장해 매년 30종이 넘는 단행본을 발간하는 등 불교 문화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쌓아왔다.

한편 제26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은은 기자

원주 법천사지 추정 寺域 최초 확인

금당지, 강당지, 동·서탑지 등 쌍탑 1금당 가람구조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은 최근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原州 法泉寺址)'에서, 금당(金堂, 본존불을 안치하는 중심 건물)과 강당(講堂)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함께 금당지 전면에 두 기의 탑지를 확인했다.

원주 법천사는 국보 제59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지금은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있던 통일신라 시대 대가람이다. 고려 시대까지 크게 융성하였으나 인진왜란을 겪으며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탑지와 금당지, 강당지가 남북 방향으로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며, 금당지 전면에 동서로 각 1기의 탑이 배치된 쌍탑 1금당 형식(하나의 금당에 탑이 두 개 있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는 경주 불국사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서탑지 앞에서는 공양보살좌상의 지대석(址臺石)으로 보이는 육각형 기단석(基壇石,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단을 쌓는 돌)이 발견됐으며 금당지 주변으로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등도 확인됐다.

중심 사역 서편의 건물지에서는 양익사(翼舍, 주 건물 좌우에 붙어 뻗어 나온 부속 건물)를 갖춘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공용 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조사 결과로 볼 때 원주 법천사는 계획적으로 구획된 공간 내에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다원식(多院式) 가람이었다"고 추정했다.

한편, 문화재청과 원주시는 원주 법천사의 성격 규명과 사역 확인 등을 위해 2001년부터 발굴조사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당지 사역 전경. 통일신라시대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공용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모습을 확인했다.

“길 위로 몰린 노동자 외면할 수 없다”

종교계, 씨앰ئم 노사 문제 해결 촉구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웅)와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장경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정진우)는 11월 4일 종로 서울파 이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앰ئم 사측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성토했다.

종교단체들은 조계종 노동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덕본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호소문에서 “해고한 비정규직 109명을 복직하는 것이 이번 갈등 해결의 첫 걸음”이라며 “노·사간 맺은 고용승계 협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종교인들은 MBK파트너스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익명 비구스님, 동국대에 10억원 '쾌척'

5일 계좌에 송금... “선방 불사 대신 인재불사에”

10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의 기금모금 부서인 대외협력본부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동국대에 기부를 하고 싶으니, 김희옥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과 통화를 한 이는 자신이 산중의 작은 사찰에 있는 스님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인재양성의 산실인 동국대가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동국대가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108주년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는 것 같아 기부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선방을 짓기 위해 오랫동안

안 불사금을 모았으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더 큰 불사라고 생각했다”며 “11월 5일 10억원을 기금모금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11월 5일 통장을 확인한 동국대 측은 스님에게 작은 답례라도 하고자 연락처를 찾았지만 전화번호와 입금자 명도 적혀 있지 않았다.

노스님과 직접 통화한 김희옥 총장은 “산중의 작은 사찰에 기거하시는 스님께서 무주상보시의 큰 뜻을 보태주셨다”며 “이러한 도움 하나 하나가 대학을 경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이어 “스님의 큰 뜻을 깊이 새겨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갖춘 출

중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 3월에도 제2기속사 착공현장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노스님이 찾아와 김희옥 총장에게 현금 3억원을 기부했다. 또 3월 말에는 부산의 작은 사찰 승림사 주지 진락 스님이 5억원을, 대구 길상선원 원명 스님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스님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는 이번 익명의 스님이 전달한 기부금을 108주년기념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교 108주년을 맞아 건립되는 108주년 기념관은 연면적 8,194평 규모의 동국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컨벤션홀, 불교연구소, 국제센터, 동창회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을미년 신년계획 득템(得Templestay) 하자!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워크 12월 1일(월) ~ 7일(일)

종이 울리고,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가 들리는 아름다운 서울에서 특별한 템플스테이 워크가 열립니다.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9곳에서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11월 17일부터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예약하세요.



2015년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leter
2014년의 내가 2015년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한 해를 정리하고 신년의 희망을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통해요(스님과의 톡! 톡! Talk!)

일시	대상	장소
12월 3일(수) ~ 4일(목) 오후 7시 ~ 9시	직장인	송진사, 연봉계약 등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스님에게 심통(心通) 부리기
12월 5일(금) 오후 4시 ~ 6시	고3 수험생	인생은 성적이 아닌 적성대로 산다. 수능 성적으로 고민중인 고3 수험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마음나눔 시간
12월 6일(토) 오전 11시 ~ 오후 2시	가족	소중한 내 가족과의 특별한 나눔이

11월 22일 시민청내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찰음식으로 만나는 템플스테이
일시: 2014년 12월 1일 ~ 2일, 10시 ~ 13시 장소: 진관사

미리 만나는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워크
일시: 11월 22일 운영시간: 11시 ~ 19시 장소: 서울시민청 홍보부스
프로그램: 둘러라 행복 회전판, 템플스테이 퀴즈쇼

www.templestay.com

